

전북대병원 문세나 간호사, 중환자

임종간호 연구 KCI 학술지 게재

전북대학교병원 연구진은 진료행정과 신속 대응팀 문세나 간호사의 연구 논문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KCI)인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KJHP)'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게재된 논문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의료에 대한 지식, 역할인식, 간호 스트레스가 임종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으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의료 관련 지식과 역할인식, 직무 스트레스가 임종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다.

연구 결과 연명의료에 대한 지식과 역할 인식은 임종간호 수행 능력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됐으며, 간호 스트레스 역시 임종간호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돌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명의료와 임종간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간호사가 임종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직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환자 중심의 고품질 임종간호 체계 구축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향후 임종간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병원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돼 환자와 가족 중심의 임종 돌봄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문 간호사가 중환자실 근무 당시 수행한 석사학위 연구를 바탕으로 발전시킨 성과로,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임종 돌봄 분야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전문적인 임종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했다. 연구에는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백지현 교수와 강정희 교수, 김혜영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오상근 기자



DH오토리드 등, 부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부안군은 지난 1일 열린 제47회 부안군수 취임사에서 DH오토리드 이석근 대표이사과 DH오토박스 김영식 대표이사과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평소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을 강조해 온 DH그룹 이장권 회장의 복령로 이취직했으며 두 대표이사가 뜻을 함께하면서 의미를 더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뜻깊은 기부를 실천해 주신 두 대표이사과 지속적으로 부안사랑을 이어오고 계신 이장권 회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초등 여자핸드볼 대회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학생들의 협동심과 배려심을 기르고,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해서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초등 학교 여자핸드볼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정읍 지역 초등학교 6개 학교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열정적인 경기를 이어갔다.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는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며 학교스포츠클럽의 참된 의미를 실천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신태인초등학교가 뛰어난 경기력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한솔초등학교가 준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6 김제시 귀농귀촌 심화교육 개강식

김제시가 2일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김제시 귀농귀촌 심화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교육생 40여명과 함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힘찬 한 걸음을 내디뎠다.

교육은 2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총 8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작목별 재배기술, 농산물경쟁 및 마케팅, 세무법률 교육, 현장견학 등 이론과 현장 교육을 병행해 교육생들의 실질적인 영농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이번 심화교육은 귀농 준비를 넘어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김제=곽태 기자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정일윤 제10대 임실군의회 전반기 의장, '현장 중심 의회' 강조

“군민에게 힘이 되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의회가 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일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의장에 당선된 정일윤 의장(진)의 일성이다.

정 의장은 “제10대 임실군의회는 군민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의회가 돼 농업 현장과 전통시장, 복지시설과 마을회관 등 군민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겠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는 생활밀착형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으나 주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지역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의회가 되어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이상기후 등 큰 위기에 헤쳐 나갈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실군의회는 변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 농업 기반 구축과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는 정 의장은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며 농업인의 삶을 지켜내고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의장은 “행정에 대한 단순한 견제·감시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복잡해지는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국 강팀’ 완주 유소년야구단, 내달 고산면서 하계 훈련

전국 유소년야구의 강팀으로 자리매김한 ‘완주군 유소년 야구단’이 올 시즌 전국대회 2관왕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유소년 스포츠팀으로 성장하고 있다.

완주군 유소년야구단은 35여명중 완주군 지역 초등학생 선수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산면에도 3명오로지 지역 야구 꿈나무 육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 규모 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제11회 한국국립 전국유소년야구대회(충남 서천)에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제13회 국토중장년 전국유소년야구대회(강원 양구)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전국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 이는 선수들의 꾸준한 노력과 체계적인 훈련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선수단은 완주군 봉동읍 유소년야구장을 훈련 거점으로 삼아 매주 4일, 하루 3시간씩 기본기와 실전 중심의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승패보다 기본기와 인성,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 철학 아래 선수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매년 순창에서 실시했던 하계·동계훈련을 올해부터는 완주군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완주군 고산면에서 10박 11일간 하계 합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선수들은 공동생활을 통해 체력과 기술은 물론 협동심과 책임감까지 함께 키우는 시간을 갖게 된다.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며 훈련하는 만



큼 지역사회와의 유대감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철 감독은 “완주군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전국 무대에서 자신 있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올해 전국대회 2회 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기본기와 인성을 갖춘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 유소년야구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유소년 야구 지면 확대와 지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며, 전국 최고의 유소년야구단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전주동부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

전주동부신협은 지역 내 취약 아동·청소년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주시 완산구 소재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전주동부신협 홍보위원과 임직원 18명이 참여해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지원 활동을 펼쳤다.

‘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는 아동·청소년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신협사회공헌재단의 후원 아래 초록우산과 전주한지협동조합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주동부신협도 사업 첫해부터 참여해 올해까지 8년째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날 봉사자들은 한자벽지 도배와 장판 교체를 비롯해 주거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화장지와 리넨, 쌀, 이불 등 8개 품목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또한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정서적 지원에도 힘을 보탰다.

전주동부신협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정례화하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성산면 새마을부녀회, 어르신 초청 점심 나눔

성산면 새마을부녀회는 2일 오성문화복지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효와 정을 나누는 사랑의 점심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홀로 지내거나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아날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점심을 대접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담소를 나누는 등 따뜻한 시간을 함께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부족 더워진 날씨에 기운이 없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대접받고 말벗까지 해주니 큰 위로와 힘이 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인옥순 전주동부신협 이사장은 “홍보위원과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동부신협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정례화하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 로타리클럽, 삼천3동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로타리클럽(회장 이재근)은 잠마철을 앞두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가구를 발굴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지붕 누수,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잠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 가구는 노후화된 주택으로 인해 잠마철마다 누수와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전주 로타리클럽은 이번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붕 보수 등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여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힘을 보탰다.

삼천3동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정리 수납 컨설턴트 창업 과정’ 남원여성새일센터, 수료식 개최

남원시(시장 양중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일, 직업교육훈련 수료생과 강사 관계자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리 수납 컨설턴트 창업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정리 수납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분야로 취·창업에 희망하는 미취업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실시. 정리수납 1급·2급의 전문교육과 코칭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강사 2급 교육과정을 지난 4월 7일부터 시작해 3개월 동안 진행했다.

교육생들은 정리수납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정리수납 단체 ‘착착박사’를 구성하고 정리수납 컨설턴트로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남원시는 수료생들의 역량 강화 및 정리수납 단체의 활성화,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취·창업예측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정리수납 봉사활동과 사후관리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미옥 여성가족과장은 “직업교육훈련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수료생들이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진장축협, 청정축산 환경개선 캠페인 전개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재근)은 지난 1일 무주군 부안면에 위치한 장안농장(한우)에서 ‘무진장 청정축산! 환경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지난 4월 이후, 진안군과 장수군에 이어 3번째로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지역 인구 고령화와 소규모 양축농가의 현실적인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주변 환경정리와 내외부 방역소독 및 한우사육관리 컨설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사육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송재근 조합장은 “축산환경 개선은 가족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기본이자,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무진장관내 고령 및 소규모 축산농가가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에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 축협이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정읍경찰, 휴가철 음주·약물운전 집중단속

정읍경찰서(서장 강경남)는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음주·약물 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 및 약물 운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단속망을 피해 가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 시간마다 기습적으로 읍기는 이동식 단속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아침 출근길 속력 운전과 낮 시간대 기습 단속에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경찰, ‘형광 가방 방수커버’ 배부 캠페인

김제경찰서(서장 하성수)는 잠마철 맞이 어린이들의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직접 나눠준다. 김제경찰서는 2일 아침, 김제초등학교 정문에서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빗길 어린이 안심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김제경찰서는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가방이 젖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동시에, 이끼나 빗길에도 빛을 강하게 반사는 ‘형광색 가방 방수커버’를 직접 싸워주며 안전 보행 수칙을 지도했다. /김제=곽태 기자